

{래도}의 기원에 대한 재고찰

안예리*

|| 차례 ||

- I. 서론
- II. 현대국어에서의 {래도}의 쓰임
- III. 20세기 초 {래도}의 쓰임
- IV. 결론

【국문초록】

기존 사전 및 연구서들은 보조사적 용법의 ‘래도’, 연결어미적 용법의 ‘-래도’, 종결어미적 용법의 ‘-래도’가 모두 ‘-라(고) 하여도’에서 ‘(고) 하’ 탈락 및 융합을 거쳐 형성된 것으로 논의해 왔다. 이는 인용 형식에서 기원한 ‘-ㄴ래도’, ‘-재도’ 등과 동일한 형성 과정을 전제한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이형태 관계, 변이형, 문법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이들의 기원이 단일하지 않음을 논증하였다. II장에서는 현대국어 말뭉치에서의 쓰임을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라도’, ‘-라도’의 변이형 ‘래도①’, ‘래도②’, ‘래도③’과, ‘-라(고) 하여도’에서 기원한 융합형 ‘-래도④’, ‘-래도⑤’의 쓰임을 구분하였다. 변이형 ‘래’형은 지역 변인에 따라 선택되는 것으로 중부방언 등에서 널리 쓰인다. III장에서는 ‘래’형이 문중되기 시작하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쓰임을 당대의 소설, 신문, 잡지 등을 통해 폭넓게 검토하였다. 현대국어에서 ‘래’형은 방언에서 널리 쓰이지만 20세기 초 자료에서는 아직 ‘라’형이 압도적 우세를 보여 ‘래’형은 20세기 동안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래’형은 인용 구문에서 융합된 ‘-래도④’의 발달로부터 유추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대에 발달한 ‘-더래도’ 역시 변이형의 출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학부 조교수

주제어: 이라도(-irado), 이래도(iredo), -더라도(-deorado), -더래도(-deoredo), 융합형(fusion form), 방언(dialect), 연결어미(connective ending), 유추(analogy)

I. 서론

한국어에는 동일한 형태로 여러 통사적 환경에 쓰이는 문법 형태들이 존재하는데 본고의 연구 대상인 {래도}도¹⁾ 그 중 하나이다. 현대국어에서 {래도}는 연결어미, 종결어미, 보조사의 자리에 나타나는데 그동안의 연구에서 이들 {래도}는 모두 ‘-라(고) 하여도’에서 ‘(고) 하’가 탈락되며 형성된 융합형으로²⁾ 다루어져 왔다.

- (1) a. 아무리 친구래도 무조건 편을 들면 안 돼.(표준)
- a'. 아무리 선배래도 후배에게 막말을 해서는 안 되지.(고려)
- b. 학교에 가래도 안 간다.(표준)
- b'. 그곳을 당장 떠나래도 철수는 말을 듣지 않았다.(고려)
- c. 아무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얼른 나오래도.(고려)
- d. 상감 땅건 사러 가는 돈이래도 집어 쓸 판이다.(이지양 1985)
- e. 선생님이래도 그 문제를 푸셔야 할텐데.(이필영 1995)

(1a), (1a')은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과 『고려대현대한국어사전(이하 고려)』에서 제시한 ‘-래도’의 연결어미적 용법으로, 두 사전에서 해

1) 본고에서 ‘{래도}’는 조사 ‘래도/이래도’와 어미 ‘-래도/-으래도’ 등에 나타나는 ‘래도’를 함께 지칭한다.

2) 국어학에서 사용되어 온 ‘융합(fusion)’이라는 용어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이선웅(2012:78-83)을 참고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선웅(2012:79)의 정의를 받아들여 ‘융합’을 “‘A+B’의 연결형에서 A와 B 모두 형태 변화를 수반하여 음절 수가 줄어드는 현상”으로 본다.

당 ‘-래도’는 ‘이-’나 ‘아니-’ 뒤에 쓰이는 ‘-라고 하여도’의 준말로 풀이되었다. (1b), (1b') 역시 두 사전에서 ‘-라고 하여도’의 준말로 풀이되었지만 선행 용언에 제약이 없어 (1a), (1a')과는 구별된다.³⁾ (1c)는 『고려』에서 제시한 종결어미 ‘-래도’의 예문으로, 준말로 풀이하지 않고 종결어미로 인정하였지만 그 기원을 ‘-라(고) 하여도’로 보고 있음은 마찬가지이다. 기존 사전들은 {래도}의 보조사적 용법을 설정하지 않았지만 {래도}에 대한 앞선 연구들은 체언에 직접 결합하는 보조사적 쓰임을 언급하였다. 이지양(1985:311)는 (1d)의 ‘래도’를 ‘-라고 해도’의 융합형으로 보며 연결어미로 쓰인 ‘-래도’와 기원은 동일하지만 융합의 정도가 더 강하다고 하였다. 이필영(1995:161) 역시 보조사로 쓰인 (1e) ‘래도’의 기원을 ‘-라 해도’로 보지만, 융합 정도가 강한 비환원적 융합형으로 보았다.

이처럼 기존의 사전이나 연구들은 연결어미, 종결어미, 보조사의 자리에 나타난 모든 {래도}를 ‘-라(고) 하여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왔다. 이러한 가정에 대한 본고의 문제의식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1)에 제시된 {래도}를 ‘-라(고) 하여도’의 융합형으로 다루어 온 것은 인용문 형식에서 ‘(고) 하’ 탈락 및 융합을 거쳐 형성된 ‘-ㄴ대도’, ‘-재도’와 동일한 형태론적 과정을 전제한 것이다. 하지만 ‘-ㄴ대도’, ‘-재도’는 어느 경우에도 ‘-ㄴ다도’, ‘-자도’로 교체될 수 없는 반면, {래도}의 경우 중 일부(1a, a', d, e)는 {라도}로⁴⁾ 교체가 가능하다. 또한 어미로 쓰일 때 {라도}와 교체될 수 있는 {래도}는 ‘이-’, ‘아니-’에만 결합돼 분포가 제한적이지만, {라도}로 교체 불가능한 {래도}는 결합 가능한 용언의 범위에 제한이 없다. 이러

3) 『표준』에서는 (1a)와 (1b)의 ‘-래도’를 다의어적 용법으로 기술한 반면, 『고려』에서는 동음이의어로 보았다. 본고에서는 본론의 논의를 통해 이들이 동음이의 관계임을 보이게 될 것이다.

4) 본고에서 ‘{라도}’는 조사 ‘라도/이라도’, 어미 ‘-라도’ 등을 함께 지칭한다.

한 문법적 성격의 차이는 {래도}의 기원이 단일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래도}의 형성과정에 대한 기존 연구의 가정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것일 뿐 실증적으로 {래도}가 문중되기 시작하는 시기의 역사적인 용례들을 검토한 결과가 아니므로 통시적 검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고는 현대국어에서 다양한 분포를 보이는 {래도}가 단일한 기원을 갖지 않음을 논증하고자 하는데, 특히 {래도}가 문헌상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용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주된 논거로 삼고자 한다. 본고의 논의를 통해 {래도} 중 일부는 기존 논의대로 ‘-라(고) 하여도’에서 ‘(고) 하’가 탈락되며 융합되는 형태론적 과정을 거쳤으나, 일부는 유추 및 방언형의 영향으로 확산된 것임을 밝히게 될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먼저 II장에서는 현대국어 말뭉치에 나타난 용례들을 분석하여 오늘날 {래도}의 쓰임을 정리하고 본고의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분류틀을 확립해 보고자 한다.

II. 현대국어에서의 {래도}의 쓰임

현대국어 말뭉치에⁵⁾ 나타난 {래도}의 용례들을 분석해 보면, 보조사, 연결어미, 종결어미로서의 용법이 두루 확인되는데, 각각의 {래도}는 구체적인 의미에 따라 세부 분류가 가능하다. 논의의 편의상 각각의 {래도}형에 대해 ①~⑤의 번호를 붙일 것이다.⁶⁾

5) 용례는 국립국어원에서 구축한 ‘21세기 세종계획 현대국어 말뭉치’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구축한 ‘물결21 코퍼스’에서 검색하였다.

6) 본고에서 사용한 ‘래도①’~‘래도⑤’는 논의 과정에서의 지칭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1. 보조사

현대국어에서 보조사 자리에 쓰인 ‘래도는⁷⁾ 의미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2)는 보조사적 용법의 ‘래도’ 중 ‘최선이 아니지만 그런대로 괜찮음’을 나타내는 용례들로 그 의미가 보조사 ‘이나마’와 유사하다. 이러한 ‘래도’를 양보의 ‘래도①’이라 칭한다. ‘래도①’은 모음 뒤에서는 ‘래도’로, 자음 뒤에서는 ‘이래도’로 실현된다.

- (2) a. 한 발자국이 안 되면 단 한 치, 단 한 치{래도/라도} 더 밀어내 보다가 쓰러져도 쓰러지자.
- b.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래도/이라도} 민주화된 거라구!
- c. 밥이 걱정이나 옷이 걱정이나. 그거{래도/라도} 다 동네사람 음덕여.

(2)에서 ‘래도①’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지만 그런대로 의미가 있는 것임을 나타낸다. 최선이 아니라는 아쉬움을 끌어안으면서도 진술 내용을 긍정하는 화자의 태도로 인해 ‘래도①’은 구문에 양보의 의미를 더하게 된다. (2)에 쓰인 ‘래도①’은 양보의 ‘라도’⁸⁾로 바꾸어 써도 의미에 차이가 없다.

동음이의어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밝혀 둔다.

- 7) 보조사로 쓰인 ‘래도’는 선행 요소의 개음절 여부에 따라 ‘이래도’, ‘래도’로 쓰이기 때문에 대표형은 ‘이래도’로 잡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기존에 여러 분포를 보이는 {래도}가 단일한 기원을 가진 것으로 취급되어 왔다는 점을 반박하기 위한 논의이므로 문제의식을 보다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여러 분포 환경에서 공통적으로 실현되는 ‘래도’에 번호를 붙이는 방식을 택하였다.
- 8) 『표준』에서는 조사 ‘라도’의 의미를 두 가지로 기술하고 있다. 첫 번째는 “그것이 썩 좋은 것은 아니나 그런대로 괜찮음을 나타내는 보조사, 그것이 최선의 것이 아니라 차선의 것임을 나타낸다.”, 두 번째는 “다른 경우들과 마찬가지로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각각은 본고에서 설정한 ‘래도①’, ‘래도②’에 대응되는 ‘라도’의 의미이다.

(3)은 보조사적 용법의 ‘래도’ 중 ‘극단성을 띠는 상황을 가정하고 그 역시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의 의미로 쓰인 용례들로, 이때의 ‘래도’는 보조사 ‘조차, 도’와 유사하다. 이러한 ‘래도’를 역동(亦同)의 ‘래도②’라 칭한다. ‘래도②’는 모음 뒤에서는 ‘래도’로, 자음 뒤에서는 ‘이래도’로 실현된다.

- (3) a. 초보자{래도/라도} 문제없이 엔딩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b. 절차가 간단해서 외국인{이래도/이라도} 쉽게 가입할 수 있어.
- c. 그때는 서울{이래도/이라도} 이렇게 붐비지 않았어.

(3)에 쓰인 ‘래도②’는 어떤 한계치에 근접해 있는 그것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쓰임의 ‘래도②’는 역동의 의미를 갖는 ‘라도’로 바꾸어 쓸 수 있다.

2. 연결어미

연결어미적 용법의 {래도} 중 ‘아-’, ‘아니-’에만 결합되는 부류를 ‘-래도③’이라 칭한다. ‘-래도③’은 ‘앞의 내용을 인정해도 뒤의 내용이 성립함’을 나타내며 구문 전체에 양보의 의미를 실현시킨다.

- (4) a. 전부는 아니{래도/라도} 받은 것의 절반은 사회에 돌려줘야 하지 않겠나.
- b. 미스 민 아니{래도/라도} 아가씨야 많잖아요.
- c. 제가 다른 사람이{래도/라도} 저의 결백을 안 믿을 것 같아요.

‘-래도③’은 (4a), (4b)에서처럼 양보의 의미만 나타내기도 하지만, (4c)에서처럼 가정한 내용을 전제로 한 양보의 의미, 즉 가정적 양보를 나타내

기도 한다. ‘-래도③’은 모두 ‘-라도’로 바꾸어 쓸 수 있는데, ‘-라도’를 포함한 ‘-어도’의 이형태들은 중세국어에서도 가정적 양보의 의미를 가졌다 (박용찬 2008:73).⁹⁾

한편 (5)의 ‘-래도④’는 ‘발화 내용을 간접 인용하며 그것과 상관없이 후행절의 내용이 성립함’을 나타낸다. 이때 인용되는 선행 발화는 명령문이며, ‘-래도④’에 결합되는 선행 용언에는 제한이 없다.

- (5) a. 다녀오지 말{래도/*라도} 나는 다녀오고야 말거야.
- b. 장갑 좀 끼고 하{래도/*라도}, 처음 배울 땐 손에 감각 익히는 게 중요하다며 고집을 피웁니다.
- c. 세상에 약값이나 좀 물어 달{래도/*라도} 못 들은 체하지요.

(5)에서 ‘-래도④’는 ‘말-’, ‘하-’, ‘달-’에 결합되었고 그밖에도 어떤 용언과도 결합이 가능한데, 이는 ‘이-’, ‘아니-’로 결합 가능한 용언이 제한적인 ‘-래도③’과 대조적이다. 또한 ‘-래도④’는 ‘-래도③’과는 달리 ‘-라도’로 교체될 수 없다. (5)에서 볼 수 있듯이 ‘말라도, 하라도, 달라도’로 쓰면 비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법적 차이를 고려할 때 같은 연결어미로의 쓰임이라 해도 ‘-래도③’과 ‘-래도④’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선행 발화를 간접 인용한다 해도 (6)에 쓰인 ‘-래도’는 ‘-래도④’

9) (4)의 ‘-래도③’은 ‘-라도’뿐 아니라 ‘-라고 해도’와도 대체가 가능한데, 기존 연구들에서는 ‘-라고 해도’로 바꾸어 쓸 수 있으면 인용을 함의하는 것으로 가정해 해당 ‘-래도’를 융합형으로 다루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교체가 가능한 것은 이들 표현이 양보의 의미를 공유하기 때문이지 인용을 함축하기 때문이 아니다. 즉, ‘하-’가 아닌 ‘-도’가 이들의 의미적 교집합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라고 해도’는 문맥에 따라 인용과 양보를 동시에 나타내거나 양보만을 나타내는데, 후자의 경우가 ‘-래도’, ‘-라도’와 교체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들 ‘-래도’, ‘-라도’가 자동적으로 인용 구문에서 융합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와 성격이 다르다.

(6) a. 내가 범인이래도 믿지를 않는다.

b. 팔이 콩이래도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6)에 쓰인 ‘-래도’는 명령문이 아닌 평서문을 간접 인용하는데, 이때 ‘-래도’는 ‘-ㄴ대도’가 지정사 뒤에서 이형태로 실현된 것이다. (6)에 쓰인 ‘-래도’는 앞서 살펴본 ‘-래도③’과 분포 환경이 동일하지만 ‘-ㄴ대도’와의 이형태 관계, ‘-라도’와의 대응 여부, 그리고 의미 기능 등 제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간접 인용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래도④’와 유사하지만 명령문이 아닌 평서문을 간접 인용하며 ‘-ㄴ대도’와 이형태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고에서는 (6)의 ‘-래도’는 논의 대상으로 삼지 않지만, 기존 사전에서¹⁰⁾ (6)의 ‘-래도’와 ‘-래도③’을 하나의 부류로 다룬 것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언급해 두고자 한다.

10) 『고려』에서는 인용되는 발화가 서술인가 명령인가에 따라 ‘-래도2’와 ‘-래도3’을 구별하였는데, 이러한 기술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일단 서술문을 인용하는 ‘-래도’를 ‘-ㄴ대도’와 별개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동사 뒤에서는 ‘-ㄴ대도’, 형용사 뒤에서는 ‘-대도’, 지정사 뒤에서는 ‘-래도’로 쓰이는데 이들은 상보적 분포를 보이면서 의미 기능이 동일하기 때문에 형태론적으로 조건 지어진 이형태 관계로 보아야 한다. 또한 『고려』에서는 서술을 인용하는 ‘-래도2’의 예문으로 아래의 예1)~예3)를 제시하였는데 그 적절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예1)은 ‘-라도’로 교체될 수 없는 선행 발화에 대한 간접 인용이지만 예2)와 예3)은 인용이 아니라 양보의 의미를 갖는 ‘-라도’의 변이형이다.

예1) 팔이 콩이래도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예2) 아무리 선배래도 후배에게 막말을 해서는 안 되지.

예3) 철수가 비록 회장이래도 그런 중대한 일을 혼자서 결정할 수는 없다.

3. 종결어미

(7)은 종결어미로 쓰인 ‘-래도’의 예로, 이 예문들에서 ‘-래도’는 화자가 앞서 말한 것(명령문)에 대해 청자가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을 때 그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표현하며 청자의 반응을 촉구한다. 이러한 ‘-래도’를 ‘-래도⑤’라 칭한다. ‘-래도⑤’는 결합 가능한 선행 용언에 제한이 없다.

- (7) a. 어서 가{래도/*라도}!
- b. 애야, 애야 울지만 말고 애길 하{래도/*라도} 응.
- c. 안으로 들어가{래도/*라도}!

(7)에 제시된 대로 종결어미로 쓰인 ‘-래도⑤’는 ‘-라도’로 교체가 불가능하다.

4. 융합형 {래도}와 변이형 {래도}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래도}는 {라도}와의 교체 여부를 기준으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래도①’, ‘래도②’, ‘-래도③’은 {라도}로의 교체가 가능하고, ‘-래도④’, ‘-래도⑤’는 교체가 불가능하다. 본고에서는 전자를 ‘변이형’으로 보고 후자를 ‘융합형’으로 보는데 이 절에서는 두 부류의 차이점과 그 기원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라도}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변이형 {래도}는 방언형일 가능성이 높다. 국립국어원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한 지역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준어의 보조사 ‘라도’와 연결어미 ‘-더라도’는 중부방언권에서¹¹⁾ ‘래

11) 중부방언은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방언을 포함한다. 김영황(1990:163)에서도 중부방언 화자들은 보조사 ‘라도’를 ‘래도’로 발음한다고 하며 다음의 예문을 제시하였다.

도, ‘-더래도’로 쓰인다(국립국어원 2010).

〈표 1〉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결과 ‘라도’와 ‘-더래도’의 방언형

분류	지역별 쓰임		우세
경기	라도	래두(포천, 파주, 양평, 이천), 라도(용인)	래
	-더라도	-더래두(포천, 이천), -드래두(파주)	래
강원	라도	래도(삼척, 양양, 평창), 래두(홍천, 인제)	래
	-더라도	-더래도(삼척, 홍천, 평창, 인제), -더래두(원주, 양양), -드래도(평창)	래
충북	라도	-래두(청원, 충주, 옥천), -래도(돈화)	래
	-더라도	-더래두(제천, 청원, 충주, 돈화), -더래도(청원), -더라도(청원), -드래도(보은), -드래두(보은), -드라도(보은)	래
충남	라도	래두(공주, 대전, 논산, 서산), 라두(서천, 서산), 라도(예산)	래
	-더라도	-더래두(공주, 서산), -더라두(서천), -드래두(예산)	래
경북	라도	라도(의성, 청도, 고령, 청송, 상주), 레도(상주)	라
	-더라도	-드라도(의성, 청도, 고령, 청송), -디라도(청송), -더래도(상주)	라
경남	라도	라도(고성, 창원, 창녕, 산청, 남해, 울산)	라
	-더라도	-더라도(고성, 창원, 창녕, 남해, 울산), -더래도(창원, 산청)	라
전북	라도	라도(임실, 완주, 무주, 남원, 군산), 래도(무주)	라
	-더라도	-더라도(완주, 군산), -드라도(임실, 고창), -드래도(임실, 남원)	라
전남	라도	라도(곡성, 영광, 보성, 영암, 신안), 레도(진도)	라
	-더라도	-드라도(곡성, 진도, 영광, 보성, 영암, 신안)	라

〈표 1〉을 보면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등 중부방언권에서는 ‘래도’, ‘-더래도’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반면,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지역에서는 거의 대부분 ‘라도’, ‘-더라도’로 쓰임을 알 수 있다. 이 조사 결과는 남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평안도¹²⁾ 및 함경도¹³⁾ 방언 연구 결과들을 참고하

예) 돼:지래두 길르세요. (돼지라도 기르세요.)

12) 김이협(1981)의 『평북방언사전』은 조사 ‘라두, 이라두’, 어미 ‘-래두’, ‘-더래두’를 표제어로 실었다. 그중 ‘래’형인 ‘-래두’는 표준어의 ‘-라도’라 풀이하였고, ‘-더래두’는

면 중부방언권 이북 지역에서도 ‘래’형이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라도}로 바꾸어 쓸 수 없는 ‘-래도④’, ‘-래도⑤’는 융합형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둘은 나머지 {래도}형과 달리 발화 내용을 간접적으로 인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래도④’와 ‘-래도⑤’는 ‘[선행절-라](고)_{인용} 하여도’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선행절-ㄴ다](고)_{인용} 하여도’에서 비롯된 ‘-ㄴ대도’, ‘[선행절-자](고)_{인용} 하여도’에서 비롯된 ‘-재도’ 등 인용문 형식으로부터 발달된 융합형 어미들과 계열체를 이룬다.

이상에 살펴본 {래도}는 기존의 통사론 연구에서 모두 융합형으로 다루어져 왔지만, 방언 연구에서는 ‘라’와 ‘래’의 대응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명되어 왔다. 기존 연구들의 방언학적 해석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다.

첫째, 방언에서 나타나는 어미의 모음 변이로 보는 입장이다. 이기갑(2003:422)은 ‘라’와 ‘래’의 대응에 대해 “모음 /ㅏ/가 /ㅐ/로 바뀌는 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다. ‘ㅏ→ㅐ’의 변화는 ‘ㅣ’ 모음 역행동화의 영향으로 광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방언에 따라 ‘ㅣ’ 모음이나 반모음 [j]가 후행하지 않는 조건에서도 ‘ㅏ→ㅐ’의 변동이 일어나기도 한다. ‘어말 ‘ㅣ’ 첨가’로 다루어져 온 ‘장가→장개’, ‘이마→이매’ 등의 변화는 어말에서 일어나며, 중부, 동북, 동남, 서북, 서남에서 두루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황대화 2000:89, 김경숙 2015:230-231). {래도}나 ‘-더래도’는 어말 ‘ㅣ’

표준어의 ‘-더라도’라 풀이하여 ‘라’형과 ‘래’형이 지역적 변이형 관계임을 보였다. 한편 김영황(1990:137)에서는 서북방언에서 조사 ‘라도’를 ‘래두’로 쓴다고 하였고, 이기갑(2003:151, 422)에서는 조사 ‘이라도’가 서북방언과 동북방언에서 ‘이래두’로, 어미 ‘-더라도’가 서북방언과 동북방언에서 ‘-더래두’로 쓰인다고 하였다.

13) 최명옥 외(2002:55)에서는 함북 북부 방언에서 ‘아니+아두’가 [아니래두]로, ‘책+이+아두’가 [채기래두]로 발음된다고 하였는데, 이를 보면 함북방언에서 어미 ‘-라도’가 ‘-래두’로 실현됨을 알 수 있다.

첨가로 보기는 어렵지만, ‘ㅣ’ 모음 역행동화와 무관하게 ‘ㅏ→ㅗ’의 변화가 광범하게 일어난다는 점에서 비어두 위치의 모음 변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방언에서 나타나는 ‘이-’, ‘아니-’의 어간 변이형으로 설명하는 입장이다. 최명옥 외(2002:56)에서는 ‘이-’, ‘아니-’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어휘화된 이형태 ‘이래-’, ‘아니래-’로 쓰인다고 하였다. 즉, ‘책이래도’를 ‘책+이래--+아도’의 결합으로, ‘아니래도’를 ‘아니래--+아도’의 결합으로 보는 것이다(최명옥 외 2002:57).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보조사로 쓰이는 ‘래도’나 ‘-더래도’에는 적용할 수 없어 설명력이 떨어진다.

셋째, {래도}를 융합형 {라도}의 방언형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지양(1985)는 {라도}에는 융합형과 비융합형이¹⁴⁾ 있는데 융합형 {라도}에 대해서만 방언형 {래도}가 존재한다고 보았다.¹⁵⁾ 이지양(1985)에서 융합형

14) 이지양(1985)에서 제시한 비융합형 ‘라도’는 ‘라’와 ‘도’가 직접 결합한 것으로, 그 의미는 ‘최선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인정함’이다. 즉, 본고에서 설정한 ‘래도①’에 대응되는 ‘라도’이다. 이지양(1985:311)는 ‘영희라도 합격해야 할텐데.’에서 ‘라도’는 ‘라(고)하여도’ 구성과 무관하므로 ‘래도’로 바뀌어 쓸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고의 앞에서 살펴봤듯이 현대국어에서 해당 보조사 ‘라도’는 실제로 ‘래도’로 교체되어 쓰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실제 쓰임에 토대를 두고 ‘래도①’을 설정하였다.

15) ‘라도’의 기원은 본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이지만, 본고에서는 서정목(1987), 리의도(1990), 안명철(1992), 박용찬(2008)과 마찬가지로 ‘-라-’를 ‘-아-’의 이형태로 본다. ‘이-’에 결합할 때 ‘-오되’가 ‘-로되’로, ‘-어사’가 ‘-라사’로 쓰이는 등 ‘이-’에 결합되는 어미는 이형태로 실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이금희(2006:62)에서는 15세기 문헌에 ‘-이라사, -이어사’가 모두 출현하기 때문에 공시대 안에서 같은 분포를 보이는 형태를 이형태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이라서, -이라야, -이라도’를 ‘-이어서, -이어야, -이어도’의 이형태로 본다면, ‘-이라면, -이라니까, -이라느니, -이라든지’ 등도 ‘-*이어면, -*이어니까, -*이어느니, -*이어든지’의 이형태여야 하지만 후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문법사적 변화가 ‘A>B’의 단순한 순차적 교체가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구형과 개신형이 공존하는 ‘A>AAB>ABB>B’의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보며 동일 분포에서의 이형태의 쓰임 역

의 예로 제시한 쓰임은 다음과 같다.¹⁶⁾

- (8) a. 바보라도 그런 사실은 안다.
- b. 박사{??라도, 래도} 그 문제를 풀 수 없다.
- c. 영희가 양귀비{??라도, 래도} 철수를 유혹할 수는 없다.
- d. 먹으{라도?~, 래도} 안 먹으니 이상하구나.

이지양(1985:313-314)에서는 (8a)의 ‘라도’가 방언형에서 ‘래도’로 쓰인다고 하면서도 같은 융합형 (8b)의 ‘라도’에 대해서는 부자연스러움을 나타내는 ‘??’ 표시를 넣고, 이를 ‘래도’로 써야한다고 보았다. (8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경우 ‘-라도’를 쓰면 어색하고 ‘-래도’를 써야 자연스럽다고 하였다.¹⁷⁾ 그리고 이는 ‘라고 해도’에서의 ‘해’로부터 가정의 의미 기능이 도출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기술을 보면 해당 논의에서 융합형의 경우 {라도}를 쓰는 것보다 {래도}를 쓰는 것이 문법적으로 더 적합하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설명은 {래도}를 {라도}의 방언형

시 이러한 과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15세기에 ‘-어도’는 ‘오-’ 뒤에서 ‘-나도’로 쓰였는데, 당대 자료를 보면 ‘오나도’와 ‘와도’가 모두 나타나 ‘-어도’, ‘-나도’가 혼재한 양상을 보인다. 이 역시 언어 변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변이형의 공존 현상이다. 따라서 15세기 ‘이-’ 뒤에 ‘어도’와 ‘라도’가 공존한다는 이유만으로 이형태 관계를 설정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또한 ‘-어-’의 대응형을 갖는 ‘-이라서, -이라야, -이라도’는 15세기부터 널리 쓰이던 어미인 반면, ‘-어-’ 대응형이 없는 ‘-이라면, -이라니까, -이라느니, -이라든지’는 19세기 말에 형성된 어미로, 이형태 ‘-라-’의 정착 이후에 생겨났기 때문에 ‘-어-’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16) (8a), (8b)는 본고에서 설정한 ‘래도②’, (8c)는 ‘래도③’, (8d)는 ‘래도④’에 해당한다.

17) 이러한 문법적 수용성 판단에는 동의하기 힘든 면이 있다. (8b), (8c)에 쓰인 ‘라도’, ‘-라도’는 『표준』에서도 그 쓰임을 풀이하고 있고 현대국어 중부방언 화자의 직관으로 볼 때 전혀 어색함이 없다.

으로 본다는 해당 논의의 기본 전제에 어긋난다.

이지양(1985)에서 보이는 방언형과 융합형의 관계에 대한 혼란은 (8d)에 대한 설명에서 더욱 가중된다. (8d)에서 ‘-라도’를 쓰면 어색하고 ‘-래도’를 써야 자연스럽다는 점이 중부방언의 ‘-래도’를 ‘-라고 해도’로 분석해야 하는 분명한 근거라고 하였는데, (8d)의 ‘-래도’는 어느 방언에서도 ‘라도’로 쓸 수 없어 애초에 ‘-라도’의 방언형으로 다루어지지 말았어야 하는 부류이다.¹⁸⁾

이상에 검토한 세 가지 관점 중 ‘라’형과 ‘래’형의 관계에 대한 가장 무리 없는 설명은 첫 번째 해석이라 생각된다. 즉 ‘-더라도’와 ‘-더래도’의 관계를 방언에서 나타나는 모음 변이의 결과로 보는 것이다.¹⁹⁾ 한국어에는 인용문 구성에서 발달한 ‘대/래’ 계열의 어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고의 검토 대상 ‘래’형 역시 융합형으로 다루어져 왔지만 방언에 나타나는 ‘래’형을 무조건 인용 형식에서 발달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한 예로 영동방언에서 널리 쓰이는 ‘-래요’는 간접 인용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 (9)는 김봉국(2007:272)에서 제시한 영동방언의 예이다.

- (9) a. 내 고향은 강릉이래요(강릉이에요).
 b. 내가 불 적에 한 사백 년 거:중(거의) 댔:을 거래요(되었을 거예요).
 c. 삼촌은 멋쟁이래었어요(멋쟁이였어요).

18) 본고의 용어로 다시 정리하자면, 이지양(1985)에서는 변이형 ‘래도②’, ‘-래도③’과 융합형 ‘-래도④’를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19) III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더래도’를 방언에 따른 모음 변이의 결과로 설명한다 해도 여전히 {래도}의 존재 이유를 밝히기는 어렵다. 20세기 초 {래도}는 ‘-더래도’와 달리 방언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일단 본고가 ‘-더래도’의 ‘래’와 {래도}의 ‘래’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달리 한다는 점만 언급해 둔다.

(9)에서 괄호 안의 형태는 김봉국(2007)에서 제시한 대응 표준어형으로, ‘-래요’는 ‘라(고) 해요’의 융합형이 아니라 ‘-어요’의 변이형이다. 이러한 예를 볼 때 ‘래’형을 취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기계적으로 ‘(고) 하’ 탈락을 거친 융합형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는 ‘-더라도/-더래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표준』에서는 ‘-더라도’를 ‘가정이나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풀이하고, ‘-더래도’를 “-더라고 해도’가 줄어든 말’로 풀이하여 두 어미 간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더라도’와 ‘-더래도’가 실제로 다른 의미 기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래’형으로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더래도’를 ‘-더라고 해도’의 준말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상의 기술을 토대로 II장에서 살펴본 {래도}를 변이형과 융합형으로 나누어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래도}의 분류²⁰⁾

분류	라도 교체	래도	분포/형태	의미
변이형	可	래도①	N+(이)래도	양보, 최선이 아니어도 선택함
		래도②	N+(이)래도	역동(亦同), 그것까지도 선택함
		-래도③	‘이/아니-’+래도	앞의 내용을 인정해도 뒷절이 성립함
융합형	不可	-래도④	V+(으)래도	(명령문을 간접 인용하며) 그와 상관없이 후행절이 성립함
		-래도⑤	V+(으)래도/	(명령문을 간접 인용하며) 청자의 반응을 거듭 유도함

<표 2>의 분류를 바탕으로 III장에서는 {래도}가 문증되기 시작하는 20세기 초 용례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0) 문말 위치는 ‘/’로 표시하였다.

Ⅲ. 20세기 초 {래도}의 쓰임

II장에서 살펴본 {래도}는 1900년대부터 문증되기 시작하지만 용례의 수로 볼 때 일반적인 쓰임이었다기보다 극히 예외적인 쓰임이었다.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더래도’의 형태는 1890년대 자료에서부터 매우 폭넓게 나타난다. ‘-더래도’의 쓰임이 본고에서 분석하는 {래도}의 형태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초창기 ‘-더래도’의 용법에 대해 살펴본 뒤 {래도}의 발달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더래도’의 출현

‘-더래도’는 1895년부터 그 쓰임이 확인되는데, ‘앞절의 내용을 인정해도 뒷절의 내용이 성립함’을 나타내 본고에서 설정한 ‘-래도③’의 의미에 해당한다.²¹⁾ 하지만 이때 ‘-더래도’를 ‘-더-’와 ‘-래도③’으로 분리하여 보기는 어렵다. ‘-더래도’의 ‘더’는 선어말어미 ‘-더-’가 갖는 인칭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고 의미상으로도 과거 회상과는 무관하므로 20세기 초 공시태에서 ‘-더래도’는 ‘-래도③’과는 별개의 어미로 보아야 한다.

(10) a. 가드릭도 若去矣<1895국한회어001>

b. 전일 밍세 아무리 중흐드릭도 오날 은혜를 생각하여 일명을 빌니면
도로혀 큰 은덕이 되야<1895유옥역25a>

c. 니각 안에서는 아모리 싸호고 윈슈궤치 지내드릭도 빗씩 와서는

21) ‘-더래도’는 19세기에 ‘-더-’와 ‘-아도’가 결합해 형성된 양보의 연결어미로 ‘-드릭도’, ‘-드랴도’로도 실현되었다(리의도 1990:172). 21세기 세종계획 역사말뭉치에서 확인되는 ‘-더래도’의 최초의 예는 1883년 『명성경언해』에서 보인다.

예) 사롭이 씨를 만나고 만나지 못~~흐~~엿드랴도 각기 시절이 잇스니<1883명성경,012a>

형태긔치 지내기를 브라노라<18960611독립신문01>

d. 관인과 빅성들이 형신을 잘하고 교제를 친밀이 하여서 약하고 가난
하드리도 겸잔흔 사름으로나 보여야 할 터이라<18960521독립신
문01>

‘-더래도’의 최초 용례는 1895년에 편찬된 국한대역사전 『국한회어』에서 확인되며(10a), 같은 해에 필사된 역자 미상의 번역소설 『유옥역전』에서도 확인된다(10b)²²⁾. 해당 자료들에 나타난 예는 (10)에 제시한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빈도를 토대로 한 추론은 불가능하지만, 『독립신문』의 경우(10c, 10d) 계량적 분석을 통해 ‘라’형과 ‘래’형 사이의 뚜렷한 선호도 차이를 볼 수 있다. 1896년 4월 14일자부터 1896년 8월 13일자까지의 기사들을 대상으로 용례를 분석해 본 결과 ‘-더라도’나 ‘-드라도’ 등 ‘라’형으로는 전혀 쓰이지 않은 반면 ‘-드리도’로 쓰인 예는 50개 이상 발견되었다. 『독립신문』 국문판의 편집과 제작을 담당한 주시경은 황해도 봉산 출신으로 중부방언 화자였는데, 『독립신문』이 ‘래’형을 절대적으로 선호했던 것은 중부방언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²³⁾

1900년대에도 ‘-더래도’는 주로 ‘-드리도’, ‘-더리도’의 형태로 여러 문

22) 『유옥역전』은 『아라비안나이트』의 일본어판을 중역한 것으로 한국 최초의 서양 번역소설로 알려져 있다(박진영 2017). 전대의 다른 고소설들과 달리 유독 『유옥역전』에서만 ‘-드리도’가 쓰인 점은 특기할 만하다. 『유옥역전』은 번역자가 밝혀져 있지 않아 방언의 영향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다른 고소설들과 달리 전래된 소설이 아니라 1895년 당시에 번역된 것이라는 점에서 당대의 구어를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

23) 『독립신문』을 포함하여 본고에서 분석한 1890~1910년대 자료에서는 ‘-더래도/더라도’, 그리고 {래도}의 ‘도’가 ‘두’로 쓰인 예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1920~1930년대 자료에서는 ‘두’로 쓰인 예들이 다수 나타났다. ‘ㄱ>ㄷ’의 고모음화는 20세기 초에 활발히 진행되었던 음운 변화로 알려져 있는데 표기를 통해 볼 때 1910년대까지는 아직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현에 사용되었을 뿐 ‘-더라도’로 쓰인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대한매일신보』 1907년 5월 23일자부터 1910년 5월 13일자까지의 기사, 그리고 『제국신문』 1898년 8월 13일자부터 1907년 10월 22일자까지의 기사에서도 이들 어미의 쓰임을 확인해 보았다.

〈표 3〉 1900년대 신문에 쓰인 ‘-더라도’의 변이형

		대한매일신보		제국신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라’형	-더라도	1	2.6	18	2.2
	-드라도	0	0	4	0.5
‘래’형	-더래도	0	0	1	0.1
	-더럭도	12	30.8	709	86.5
	-드래도	0	0	0	0
	-드럭도	26	66.7	88	10.7
합계		39	100	820	100

두 신문에서는 공통적으로 ‘라’형의 쓰임이 매우 저조하고 ‘래’형의 쓰임이 두드러진 양상을 보인다. 『대한매일신보』의 주요 필진은 황해도 황주 출신의 박은식, 충청남도 대전 출신의 신채호, 충청남도 홍성 출신의 최익등으로 이들은 모두 중부방언 화자였다. 또한 『제국신문』의 논설은 주로 이승만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승만은 황해도 평산 출신으로 역시 중부방언 화자이다.

한편, 중부방언 화자와 비중부방언 화자의 작품들을 검토해 보아도 ‘라’형과 ‘래’형에 대한 선호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4>는 경기도 포천 출신의 이해조와 평안북도 정주 출신 이광수의 작품에²⁴⁾ 나타난 ‘라’형과

24) 이해조의 작품은 ‘빈상설, 고목화, 쌍옥적, 원앙도, 철세계, 흥도화, 구의산, 월하가인, 산천초목, 옥호기연, 추풍감수록, 화의혈, 구마검, 모란병, 비파성, 자유종, 화세계’의

‘래’형의 출현 빈도를 정리한 것이다.

〈표 4〉 이해조와 이광수의 ‘라’형/‘래’형 사용 양상(1900~1910년대)

		이해조		이광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라’형	-더라도	9	5.2	213	99.1
	-드라도	0	0	0	0
‘래’형	-더래도	9	5.2	1	0.5
	-더리도	97	56.1	1	0.5
	-드래도	4	2.3	0	0
	-드리도	54	31.2	0	0
합계		173	100	215	100

중부방언 화자인 이해조의 작품에서는 ‘래’형이 94.8%로 주를 이룬 반면, 서북방언 화자인 이광수의 작품에서는 ‘라’형이 99.1%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출신 지역에 따라 ‘라’형과 ‘래’형에 대한 선호도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때 ‘라’형과 ‘래’형 간에 의미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11) a. 조석밥이 조금 늦던가 물을 얻는 씨오지 안이호더리도 더부사리다
 려 바로 남으라는 것이 안이라 로파가 건넌산 꾸짓기로 웨 이 모양
 이냐<이해조-원앙도62>
- b. 가랑 슈정이가 빠지지를 안이호고 우연히 실족호야서 기어나오라
 고 익를 쓰더리도 의복에 물이 치여 용이치 못혀려던<이해조-화
 세계179>
- c. 다시 드러오더리도 밥도 주지 말고 더 초막을 잠가 버리오<이해조
 -화세계509>

17편, 이광수의 작품은 ‘어린 벼에게’, ‘무정’, ‘흙’의 3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 d. 또는 나를 바리지 아니하더라도 구원할 힘이 업서 스랑하논 형식으로 하여금 부질업시 마음을 괴롭게 하기보다<이광수-무정171>
- e. 이러흔 계집은 어려서부터 가라치고 가라치더라도 악인이 되기 쉬우려든<이광수-무정267>
- f. 그러나 평성에 바껏 공기에 낙어서 니장에 독균을 더할할 만흔 힘을 길으면 여간흔 독균이 들어오더라도 무섭지를 아니한다.<이광수-무정578>

(11a)~(11c)는 이해조의 소설에 쓰인 ‘-더래도’, (11d)~(11f)는 이광수의 소설에 쓰인 ‘-더라도’의 용례로, 두 경우 모두 가정과 양보를 나타내는 의미는 동일하다.²⁵⁾

한편, 20세기 초 자료에서 확인되는 {래도}와 {라도}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다. 본고의 조사 결과 ‘-더래도’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했던 20세기 초 자료들이 모두 보조사나 연결어미 자리에서는 {래도}를 쓰지 않고 {라도}만을 쓴 것이다. (12)는 앞서 살펴본 『독립신문』, 『제국신문』, 그리고 이해조의 작품에 쓰인 {라도}의 예이다.

(12) a. ‘래도①’에 대응되는 ‘라도’

- 돌지는 상관의 명령을 추호라도 어긋지 앓는 거시요<18969798독립신문01>
- 너가 이왕 죽는터에 귀신이라도 찌똥하게 도라단기게 식의복이나 너여입고 죽겟다<이해조-흥도화上29>

b. ‘래도②’에 대응되는 ‘라도’

- 만일 그 상관이 규칙에 잇는 일을 명하거든 죽을 일이라도 더듬지

25) 이광수의 소설들에서 ‘-더라도’가 선호되는 것은 당대 자료 전반을 볼 때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1890~1910년대 소설, 신문, 잡지 등을 종합해 볼 때 ‘-더래도’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 말고 곳 헝헝며<18960709독립신문01>
- 술을 먹고라도 싸흠을 그러케 잘홀 것 갓흐면 만일 술을 더 먹으면 싸흠을 더 잘홀 터인고로<18960623독립신문01>
 - c. ‘-래도③’에 대응되는 ‘-라도’
 - 내가 아니라도 홀사름이 잇다 헝던지<19020624제국신문01>
 - 내야 의복이 이것 아니라도 평싱을 입어도 남을 터이니 도로 갓다 그 덕 아씨씨 드리고<이해조-월하가인29>

(12a), (12b)의 보조사 ‘라도’는 이미 15세기부터 널리 쓰여 왔으므로(허웅 1975:393) 중부방언에서 그 발음이 ‘래도’였다면 19세기 말 자료에서도 충분히 문증되었을 것이다. (12c)의 연결어미 ‘-라도’ 역시 중세국어시기에도 쓰이던 형태인데(허웅 1975:566), 그 표기가 ‘-래도’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부터이다.

20세기 초 당시 보조사 ‘라도’나 연결어미 ‘-라도’의 중부방언형이 ‘래도’, ‘-래도’였다면, ‘-더래도’가 ‘-더라도’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차지했던 중부방언 자료에서도 ‘래도’나 ‘-래도’가 널리 쓰였을 것인데 실제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20세기 초의 이러한 쓰임은 앞서 살펴본 현대국어 방언 조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점이다.²⁶⁾

2. {래도}의 분포 변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대국어에서는 {라도}와 {래도}의 관계를 지역적 변이형 관계로 볼 수 있지만 20세기 초 자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26) 오구라 신페이 저·이진호 역(2009), 오구라 신페이 저·이상규·이순형 교역(2009)를 통해 20세기 초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의 방언 조사 자료를 살펴보았으나 관련 언급은 찾을 수 없었다.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 절에서는 당시의 용례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 보며 {래도}의 출현 이유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표 5>는 1900년부터 1939년까지를 10년 단위로 나누어 각 시기에 발행된 소설에서²⁷⁾ 확인 되는 ‘-더래도’와 {래도}의 쓰임을 정리한 것이다.

27) 분석 자료로 삼은 작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 1900년대: 강태공전, 토끼전, 금방울전, 소대성전, 홍보전, 심청전, 춘향전, 월남망국사, 귀의성上下, 혈의누, 계명성, 구마검, 빈상설, 설중매, 송퇴금, 은세계, 철세계, 치악산上, 홍도화上, 금수회의록, 성산명경, 원양도 / 1910년대: 화세계, 화의혈, 고목화, 구의산, 두견성, 만인계, 마상루, 명월정, 비행선, 산천초목, 옥호기연, 완월루, 재봉춘, 추월색, 추풍감수록, 행락도, 현미경, 화의혈, 화중화, 황금담, 금의쟁성, 비파성, 세검정, 우중행인, 한월下, 금강문上下, 금강문, 안의성, 추천명월, 공진회, 눈물, 어린 벗에게, 무정, 약한 자의 슬픔 / 1920년대: 배따라기, 빈처, 술권하는 사회, 암야, 표본실의 청개구리, E선생, 별을 안거든 울지나 말걸, 영원의 승방몽, 옛날 꿈은 창백하더이다, 젊은이의 시절, 제야, 환희, 백치 아다다, 십칠원 오십전, 여이발사, 죽음과 그 그림자, 지새는 안개, 춘성, 해파리의 노래, 행랑자식, 국경의 밤, 금반지, 니줄 수 없는 사람들, 운수조흔날, 자기를 찾기 전, 전차 차장의 일기 몇절, 감자, 검사국대합실, 계집하인, 고독, 꿈, 물레방아, 병어리삼룡이, 뽕, 윤전기, 인력거꾼, 전화, 탈출기, 화수분, B사감과 러브레타, J의사의 고백, 님의 침묵, 석공조합대표, 유서, 지형근, 초연, 화염에 싸인 원한, 두출발, 밥, 청춘, 홍염, 숙박기, E부인1, 과도기, 광염소나타, 썩은 호도 / 1930년대: 광화사, 젊은 그들, 장미 병들다, 레디메이드인생, 질투와 밥, 연애의 청산, 레디메이드인생, 흙을 그리는 마음, 명탐정, 불우선생, 잡초, 흙, 고향, 돈, 거리의 니힐리스트, 닭이가리, 루비슈가, 붉은산, 산골 나그네, 소포, 운현궁의 봄, 총각과 맹꽂이, 병든 소녀, 두포전, 만무방, 불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정분, 홍수전야, 소낙비, 무현금, 금따는 콩밭, 떡, 봄봄, 사하춘, 솟, 파종, 황금과 장미, 사랑손님과 어머니, 김강사와 티교수, 민보의 생활표, 한귀, 빈-제1장제1과, 생의 반려, 암야행로, 줄꼭제, 탈출 이후, 가마귀, 금삼의 피, 날개, 두꺼비, 모릅, 무녀도, 봄과 따라지, 봉별기, 상록수, 슬픈 이야기, 실직, 아네모네의 마담, 야앵, 옥토끼, 정조, 지주회사, 가을, 들, 이런 음악회, 미완성, 공포의 기록, 따라지, 복덕방, 서화, 슬픈 이야기, 연기, 짙레꽃, 숙천변풍경, 어린태양이말하되, 화관, 창랑정기, 치숙, 패강랭, 남생이, 무연담, 쑥국새, 천맥, 태평천하, 바보 용칠이, 가을, 제일과 제일장, 어머니, 적도, 임거정, 백구, 삼대, 사흘 굶은 봄달, 조조, 노다지, 애기, 형, 금, 산골, 안해, 흑풍, 기괴한 동백꽃, 모밀꽃 필 무렵, 봄밤, 심정, 옥심이, 동해, 땃별, 종생기, 노염뒤, 신개지, 농군, 황토기, 녹음 밋해서, 신록, 영원의 미소

〈표 5〉 20세기 초 소설에 나타난 ‘-더래도’와 {래도}의 쓰임²⁸⁾

분류		1900s		1910s		1920s		1930s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더래도		444	99.8	549	97.3	83	94.3	413	88.8
변이형	래도①	1	0.2	1	0.2	1	1.1	15	3.2
	래도②	0	0	6	1.1	1	1.1	7	1.5
	-래도③	0	0	0	0	0	0	12	2.6
융합형	-래도④	0	0	8	1.4	3	3.4	16	3.4
	-래도⑤	0	0	0	0	0	0	2	0.4
합계		445	100	564	100	88	100	465	100

190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어느 시기에나 ‘-더래도’의 용례가 {래도}의 용례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지만, {래도}의 비중도 조금씩 증가한 양상이 보인다. 변이형 {래도}의 경우 보조사로서의 쓰임은 1900년대부터 극소수의 예에서나마 확인되지만 연결어미로서의 쓰임은 1930년대부터 나타난다. 융합형의 경우 연결어미로서의 쓰임은 1910년대부터 확인되지만 종결어미로서의 쓰임은 1930년대부터 나타난다.

소설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변화가 같은 시기에 발행된 신문과 잡지에서 도 유사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았다. <표 6>은 1890~1900년대에 발행된 『제국신문』과 『대조선독립협회회보』 등의 학회지, 1920년대에 발행된 『개벽』, 1930년대에 발행된²⁹⁾ 『삼천리』에 나타난 ‘-더래도’와 {래도}의

28) <표 5>에 제시된 ‘-더래도’의 빈도는 빈도는 ‘-더래도’, ‘-더래두’, ‘-드래도’, ‘-드래두’, ‘-터래도’, ‘-터래두’, ‘-트래도’, ‘-트래두’의 빈도를 합친 것이고, ‘-더라도’의 빈도 역시 ‘-더라도’, ‘-더라두’, ‘-드라도’, ‘-드라두’, ‘-터라도’, ‘-터라두’, ‘-트라도’, ‘-트라두’의 빈도를 합친 것이다. 이는 뒤에 제시할 <표 6>, <표 7>도 마찬가지이다.

29) 『삼천리』는 1929년 6월부터 1942년 1월까지 발행되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1920~1940년대를 포함하지만, 1930년대 전체를 포함하고 1920년대는 6개월, 1940년대는 1년 정도만 포함하기 때문에 1930년대로 표기하였다.

쓰임을 분석한 것이다.³⁰⁾

〈표 6〉 20세기 초 신문, 잡지에 나타난 ‘-더래도’와 {래도}의 쓰임

분류		1890s~1900s				1920s		1930s	
		제국신문		학회지		개벽		삼천리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변이형	-더래도	798	100	22	100	552	94.0	675	87.8
	래도①	0	0	0	0	12	2.0	40	5.2
	래도②	0	0	0	0	17	2.9	32	4.2
	-래도③	0	0	0	0	0	0	5	0.7
융합형	-래도④	0	0	0	0	6	1.0	17	2.2
	-래도⑤	0	0	0	0	0	0	0	0
합계		798	100	22	100	587	100	769	100

소설에서처럼 신문, 잡지의 경우도 어느 시기나 ‘-더래도’의 비중이 나머지 {래도}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변이형 {래도} 중 보조사로서의 쓰임이 1920년대가 되어서야 확인되어 소설에 비해 늦지만 소설의 경우도 극소수의 예가 발견될 뿐이므로 이러한 차이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변이형 {래도} 중 연결어미로서의 용법은 소설에서와 마찬가지로 1930년대부터 확인된다. 융합형의 경우 연결어미로의 쓰임은 1920년대부터 확인되는데, 앞서 살펴본 소설의 경우 1910년대부터 나타났다. 하지만 소설과 달리

30) 분석 대상 자료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제국신문(1898.8.13.~1907.10.22.)』, 『대조선 독립협회회보(1896 제1호~1897 제17호)』, 『대한자강회월보(1906 제1호~1907 제13호)』, 『서우(1906 제1호~1908 제17호)』, 『태극학보(1906 제1호~1908 제26호)』, 『대한유학생회학보(1907 제1호~1907 제3호)』, 『기호홍학회월보(1908 제1호~1909 제12호)』, 『대동학회월보(1908 제1호~1909 제20호)』, 『대한협회회보(1908 제1호~1909 제12호)』, 『호남학보(1908 제1호~1909 제9호)』, 『서북학회월보(1908 제1호~1910 제19호)』, 『대한학회월보(1908 제1호~1908 제9호)』, 『대한홍학보(1909 제1호~1910 제13호)』, 『개벽(1920 제1호~1926 제72호)』, 『삼천리(1929 제1호~1942 제152호)』.

신문, 잡지의 경우 1910년대에 간행된 것이 거의 없고 전산화도 되어 있지 않아 조사를 하지 못했으므로 시기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한편 종결어미로서의 쓰임은 확인되지 않았다.

두 가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알 수 있는 사실은 20세기 전반기 동안 ‘-더래도’의 쓰임은 다른 {래도}형과 비교해 볼 때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 변이형의 경우 보조사적 쓰임이 연결어미적 쓰임보다 이른 시기에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융합형의 경우 연결어미적 쓰임이 종결어미적 쓰임보다 먼저 발달해 있었다는 점, 1930년대가 되어서야 모든 {래도}의 쓰임이 확인되는데 빈도로 볼 때 그 쓰임은 일반적이라기보다 예외에 가까웠다는 점 등이다.

당시 대응형 {라도}가 매우 폭넓게 쓰이고 있던 것과 비교해 본다면 <표 5>와 <표 6>에 제시된 {래도}의 수치는 극히 예외적인 쓰임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변이형 {래도}는 에 대응되는 {라도}는 수백 년 동안 꾸준히 쓰여 왔고 20세기 초 소설이나 잡지에서도 수천 개의 용례가 확인된다. 한 예로 본고의 조사 대상 『제국신문』의 경우, <표 6>에 나타난 대로 {래도}는 한 번도 쓰이지 않은 반면 {라도}는 2,032회 쓰였고, 『개벽』의 경우 {래도}는 총 35회 쓰인 반면 {라도}는 2,949회 쓰였다. 의미 기능이 동일해 교체가 가능한 {라도}형이 압도적 우세를 보이며 쓰이는 가운데 극소수의 예에서 {래도}형이 쓰인 것이다.

20세기 초 당시 방언형이었다는 근거도 뚜렷하지 않고 {라도}와 별개로 보기도 어려운 ‘래도①’, ‘래도②’, ‘-래도③’은³¹⁾ 어떤 이유로 극소수의 용

31) 20세기 초 자료에 나타난 각각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예) [래도①] 보리기덕 겨죽이린도 만니 쥬게<1908홍보전2b>

예) [래도②] 三尺童子 보고래도 이 세상에 惡魔窟이 어대나? 라고 무르면 「公娼이야요」라고 대답하는 죄악의 根源泉을 낸 자도 남자이다.<1922개벽20-037>

레에 나타나게 된 것일까? 이들의 쓰임은 일종의 오류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 본고에서는 융합형 ‘-래도④’의 발달이 종래에 널리 쓰이던 보조사 ‘라도’ 및 연결어미 ‘-라도’의 쓰임에 영향을 주어 일종의 잘못된 유추로 변이형 {래도}가 출현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역시 소수의 용례에서 확인될 뿐이지만 융합형 ‘-래도④’는 대응되는 ‘-라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분석으로 인한 예외적 쓰임이 아니라 새로운 문법 형태의 발달 초기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래도④’는 ‘-라(고) 하여도’로부터 융합된 형태인데 이때 ‘-라’는 명령형 어미이다.

- (13) a. 내 손에 엇어터지기 전에 진작 가래도 안이 가는구나<1912홍도화
下017>
b. 니 꺾을 날더러 분석을 흐린도 발명할 말이 업실 쏜더러<1913한월
下105>
c. 나중엔 아이들까지 「아즈머니」라 하래도 「색시 색시」하였
다.<192X조광076>
d. 의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래도 하지 안으니<1924개벽51-018>
e. 마당 한가운데 가 뒤짐을 짓고 서서 올러오래도 올러오지를 안코
<1931삼천리03-10-106>

20세기 초에는 평서형 ‘-ㄴ다’나 청유형 ‘-자’를 포함한 인용문 구성도 융합형 어미 ‘-ㄴ대도’, ‘-재도’로 발달되었기 때문에 명령형 어미 ‘-라’가 포함된 인용 형식 역시 이러한 변화를 겪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인용 형식에서 발달된 융합형 어미 {래도}는 아래의 (14e)와 같이 일부 용례에서 종결어미적 쓰임을 보인다. 그런데 연결어미 ‘-래도④’가 종결어

예) [-래도③] 제작은 자유래도 그 결과까지 자유여서는 안된다.<1938삼천리
10-11-90>

미 ‘-래도⑤’로 발달되는 과정에는 (14a)~(14c)처럼 ‘그러-’가 후행한 구문이나 (14d)처럼 말줄임표가 사용된 구문들이 매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 (14) a. 방에 들어가서 조리를 하래도 그래<1935삼천리07-01-261>
- b. 글썄 그건 염려 말래도 그러세요.<1936금삼의피048>
- c. 어, 가보래도 그러는군. 좀 가 보아요.<1939적도085>
- d. 아따 댁 농사는 걱정 마시래도……. 저 혼자라도 두 집 농사는 염려 없이 짓는답니다.<193X봄봄158>
- e. 저리 나가, 저리로 나가래도.<1938무영탑223>

‘-래도’ 뒤에 이어진 ‘그래, 그러세요, 그러는군’ 등 ‘그러-’의 활용형은 실질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후행절이라기보다 일종의 간투사 역할을 하는 표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14d)에서처럼 말줄임표로 처리되어도 무방하다. 이러한 쓰임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14e)와 같이 종결어미 용법이 발달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연결어미로 쓰이며 종결어미로도 발달해 가던 융합형 {래도}의 등장은 종래에 {라도}로 쓰이던 보조사와 연결어미의 쓰임에 혼란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단 음성 형식이 유사하고 양보를 나타내는 어미라는 점에서 의미 기능상의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유추가 일어날 조건은 충분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본고에서는 논외로 삼았지만 지정사 뒤에 쓰이는 ‘-ㄴ대도’의 이형태 ‘-래도’³²⁾ 역시 지정사 뒤에 결합되던 연결어미 ‘-라도’의 쓰임에 직접적인 혼란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더래도’의 등장도 이러한 혼란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32) 이에 대해서는 본고의 예문 (6)과 그에 대한 하단의 기술을 참고하기 바란다.

있다. 19세기 말부터 등장한 ‘-더래도’는 앞서 살펴본 대로 1900년대까지 매우 폭넓은 쓰임을 보였는데, ‘-다-’와 ‘아-’, ‘아니-’는 후행 어미로 ‘다’형 대신 ‘라’형을 취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다-’ 뒤에 분포하는 ‘래’가 유추의 결과 ‘아-’나 ‘아니-’ 뒤에도 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더래도’와 ‘-더라도’의 공존은 이러한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을 수 있다. 앞서 분석한 190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의 소설 자료들에서 ‘-더라도’와 ‘-더래도’의 용례를 조사해 보면 이 기간 동안 ‘-더래도’는 감소하고 ‘-더라도’는 급격히 확산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표 7〉 20세기 초 소설에 나타난 ‘-더래도’와 ‘-더라도’의 쓰임

분류	1900s		1910s		1920s		1930s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더래도	885	84.8	322	74.2	83	47.2	413	27.0
-더라도	159	15.2	112	25.8	93	52.8	1119	73.0
합계	1044	100	434	100	176	100	1532	100

위의 표를 보면 1900년대까지만 해도 ‘-더래도’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였지만 비중이 점차 줄어 1930년대가 되면 비중이 거의 반대가 되어 ‘-더라도’가 우세했음을 알 수 있다. 즉, 1890년대에 등장해 1900까지 주류를 이루던 ‘-더래도’가 1910~1930년대를 지나며 ‘-더라도’로 대체되는 변화가 매우 급격히 진행되었던 것이다.³³⁾

33) 이러한 변화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 조선어학회의 주도로 진행된 어문 규범화의 영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조선어학회는 1936년에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발표했는데, 이 책의 19쪽을 보면 ‘-더라도’, ‘-드라도’, ‘-드래도’ 중 ‘-더라도’를 표준말로 삼는다고 하였다. 조선어학회는 규범화의 일차적 기준을 당시 경성말로 삼았지만 그와 더불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규칙을 세우는 데에도 주력하였다. 서울 방언에서도 ‘-더라도’는 [드래두]로 발음되기 때문에(유필재

20세기 초 당시 ‘-더래도’가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더래도’에서 ‘-더라도’로의 교체가 진행되던 와중에 간접 인용의 융합형 ‘-래도④’까지 등장하면서 종래에 수백 년간 안정적 쓰임을 유지해 온 ‘라도’, ‘-라도’가 일부 화자들의 잘못된 유추로 ‘래도’, ‘-래도’로 쓰인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본고에서 분석한 여러 가지 결과들에 대한 가장 타당한 해석이라 생각된다.³⁴⁾

IV. 결론

기존의 사전이나 선행 연구들에서 {래도}는 별다른 논증 없이 ‘-라(고) 하여도’의 준말 또는 융합형으로 다루어져 왔다. 이는 인용 형식에서 융합된 ‘-ㄴ래도’, ‘-재도’ 등과의 동일한 형성 과정을 전제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문장에서 여러 환경에 실현되는 {래도}의 기원을 ‘라(고) 하여도’로 단 일하게 파악해 온 기존의 관점은 이론에 경도되어 실제의 쓰임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은 결과였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현대국어 말뭉치에 나타난 용례를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융합형 {래도}와 방언적 변이형 {래도}의 차이, 그리고 보조사, 연결어미, 중

2006:201) ‘-더라도’를 선택한 것은 후자의 기준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서울말에서 ‘-더래도’로 쓰인다고 해도 문법적으로는 ‘래’형을 취할 이유가 없으므로 보다 합리적인 문법 기술을 위해 이를 ‘-더라도’로 바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을 통해 <표 7>의 결과를 해석할 수도 있지만, ‘-더라도’의 비중이 이미 1910년대부터 점차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은 여전히 설명이 되지 않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4) 이러한 분석 결과와 앞서 살펴본 현대국어 방언 조사 결과를 연결시켜 보면, 융합형에 대한 유추로 인해 생성된 보조사 ‘래도’와 연결어미 ‘-래도’는 20세기 동안 방언형에서 확산되었고, 오늘날 중부방언과 동북방언, 서북방언에서 널리 쓰이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결어미로서의 쓰임, 마지막으로 ‘-ㄴ대도’의 이형태로서의 ‘-래도’와 명령형 어미 ‘-라’를 포함한 융합형 ‘-래도’를 구별할 필요성 등을 제기하였다. 본고의 이러한 분석은 현행 사전 기술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에 참고가 될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래도}가 문증되기 시작하는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용례를 폭넓게 관찰하여 변이형과 융합형 {래도}의 초창기 쓰임을 상세히 기술하였고, 계량적 분석 결과에 대한 언어학적 해석을 통해 변이형 {래도}가 융합형 {래도} 및 ‘-더래도’로부터 유추되어 출현했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본고에서는 {래도}에만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였지만, ‘-으래면’, ‘-으래서’ 등 ‘라’형에 대응되는 ‘래’형 어미들에 대한 논의를 함께 전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20세기 초에 융합형 ‘-래도④’로부터 유추된 변이형 ‘래도①’, ‘래도②’, ‘-래도③’이 방언에서 확산되는 과정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다.³⁵⁾ 이에 대해서는 20세기 초 방언 자료에 대한 추후의 폭넓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35) 본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대국어 방언 조사 자료에는 ‘-더래도’와 {래도} 모두 중부 방언에서 폭넓게 쓰이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20세기 초 중부방언 자료에서는 ‘-더래도’만 확인되고 {래도}는 거의 대부분 {라도}로 쓰였다. 이러한 차이는 20세기 동안 방언에서 일어난 변화를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높는데, 검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고려대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 국립국어원, 『2010년도 강원/경기/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연구책임자: 이기갑)』, 국립국어원, 2010.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1999.
- 김경숙, 『한국 방언의 지리적 분포와 변화』, 역락, 2015.
- 김봉국, 『강원』, 『(국립국어원 국어자료총서1) 방언 이야기』, 태학사, 2007.
- 김영환, 『조선어 방언학』, 한국문화사, 1990.
- 김이협, 『평북방언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 리의도, 『우리말 이음씨끝의 통시적 연구』, 어문각, 1990.
- 박진영, 『『아라비안나이트』의 한국어 번역 계보와 『유옥역전』』, 『한국문학연구』53, 한국문학연구학회, 2017, pp.355-381.
- 박용찬, 『중세국어 연결어미와 보조사의 통합형』, 태학사, 2008.
- 서정목, 『국어 의문문 연구』, 탑출판사, 1987.
- 안명철, 『현대국어의 보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오구라 신포이 저·이상규·이순형 교열, 『조선어 방언 사전』, 한국문화사, 2009.
- 오구라 신포이 저·이진호 역, 『한국어 방언 연구』,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9.
- 유필재, 『서울방언의 음운론』, 월인, 2006.
- 유창돈, 『이조어사전』, 연세대학교 출판부, 1964/2005.
- 이금희, 『인용문 형식에서 문법화된 어미·조사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이기갑, 『국어 방언 문법』, 태학사, 2003.
- 이선웅, 『한국어 문법론의 개념어 연구』, 월인, 2012.
- 이지양, 『융합형 ‘래도’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10, 서울대학교, 1985, pp.309-331.
- 이필영, 『국어의 인용구문 연구』, 탑출판사, 1995.
- 조선어학회,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조선어학회, 1936/1946.
- 최명옥·곽충구·배주채·전학석, 『함북 북부 지역어 연구』, 태학사, 2002.
- 허웅, 『우리 옛말본: 15세기 국어 형태론』, 샘문화사, 1975/2000.
- 황대화, 『조선 방언 연구』, 한국문화사, 2000.

Abstract

Reconsidering the Origin of the Fusion Form {redo}

An, Ye-lee

Previous dictionaries and research have assumed that the Korean auxiliary particle '*redo*,' connective ending '*-redo*,' and final ending '*-redo*' all originated from the quotative construction '*-ra(go) hayeodo*' by the dropping and fusion of '*(go) ha*.' This viewpoint has been taken for granted given that '*-ndedo*' and '*-jedo*' are said to have formed through the same process. However, the present paper argues, by considering allomorph relationships, variants, and grammatical distributions, that the foundation of '*redo/-redo*' was not a single linear process. Part 2 examines contemporary uses of '*redo/-redo*' in corpora and classifies them into two groups: variant forms '*redo(1)*,' '*redo(2)*,' and fusion forms '*-redo(4)*' and '*-redo(5)*.' It is confirmed that the variant '*re*' forms are used in the midland dialects in contemporary Korean. Part 3 analyzes the uses found in novels, newspapers, and magazines published from the late 19th to the early 20th centuries, when '*re*' forms first began to appear. In the 21st century, '*re*' forms are widely used in dialects; however, in the early 20th century, '*ra*' forms in texts were dominant; therefore, we can say that the use of '*re*' forms expanded during the 20th century. The variant '*re*' forms seemed to appear through their close similarity with the fusion form '*-redo(4)*,' which had formed from the longer quotative construction. Moreover, the advent of '*-deoredo*' is also thought to have affected the appearance of the variant forms.

Key Word: *-irado*, *iredo*, *-deorado*, *-deoredo*, fusion form, dialect, connective ending, analogy

안예리

소속 :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학부 조교수

전자우편 : anyelee@aks.ac.kr

이 논문은 2017년 7월 31일 투고되어
2017년 9월 3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7년 9월 8일 게재 확정됨.

